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

—大學의 社會史(完)—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教育學科)

오늘날 大學 社會에 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大學文化의 창출이라고 할 것이다. 새로이 形成되어야 할 大學文化는 大學 밖의 세계로부터 傳授되는 것이 아니라 學生과 教授의 자유로운 知的 공동 작업에 의하여 創出되는 것이어야 한다.

大學의 社會史

1.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
2. 近世 大學의 형성과 그 沈滯
3. 베를린大學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
4. 技術·産業社會에서의 大學 狀況
5. 現代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

1. 머리말

1970년대 전후는 현대 지성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기로 기록될 것이다. 그 전환기의 상징적 사건은 1968년 5월 프랑스 파리의 학생 반란이었다. 그 5월에 앞서 '67년 10월 이래 파리 교외 파리대학의 낭테르文學部에서 남녀 학생들이 상대방의 기숙사를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고 대학 당국과 맞서 소

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 소동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 베트콩의 승리를 지원하기 위한 반전 운동, 소비 사회에 대한 공격 및 一夫一妻制를 기초로 하는 가족 제도를 반대하는 등 일련의 정치적 쟁점이 운동을 이끌고, 학생 운동은 기존 문명에 대한 반대 운동에까지 에스카레이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마르크스·毛澤東·마르쿠제·바쿠닌 그리고 프로이트의 사상이었다.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는 애초에 그 학생 소동에 대체로 무관심하였으며 그 성격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정부나 문교 당국도 그것이 얼마 안 가서 '5월 혁명'으로서 표현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였다. 그뒤 학생 반란은 1천만 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러 일으키고 운동의 초기부터 학생들에 의해 제기된 '異議(contestation)'는 대학을 둘러싼 현대 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을 드러내고 파헤친 것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들의 사회 문제는 때때로 '새로운 세대'의 관점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진실을 깊이 음미할 때 1968년 파리의 '5월 혁명'을 정점으로 한 1970년 전후의 선진 고도 산업 사회에서의 학생 운동은 아직도 未完의 많은 과제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현대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성에 관해 프랑스의 5월 학생 운동을 제삼 논한 바 있거니와 ('高度産業社會에서의 學生運動—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大學教育」, 1986.1) 본고에서는 1964~'65년에 걸친 미국 버클리대학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 대학의 변모 양상과 그것이 지닌 여러 문제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멀티버시티의 등장

미국의 사회학자 마틴 트로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어려움은 고등교육 제도가 어느 한 단계에서부터 다음 단계에 옮겨지는 전환기에서 발생된다. 그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제1 발전 단계는 엘리트교육의 단계이다. 그것은 대학 적령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학생의 비율이 15% 미만임을 말하며, 이때 고등교육은 소수자의 특권이 되고 그 사회의 지배 계층에 봉사한다. 제2차 대전 이전에 있어서는 선진 제국의 대학도 그러한 단계에 있었다.

제2의 단계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이다. 적령 인구 중 학생 수가 15%를 넘으면 이 단계에 이른다. 이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엘리트형 교육 체제의 확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다 다양한 기능을 다할 비엘리트형의 고등교육 체제가 요구된다.

엘리트형과 대중형의 차이는 단순히 양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학 동기, 선발 기능, 교과 과정, 학생 집단의 성격, 대학의 규모, 교육 방법, 학생과 교사의 관계, 관리 운영 방식 등에도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제3의 단계는 보편적인 고등교육이다. 학생 수가 적령 인구의 50%를 넘으면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인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 있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나 受惠이기보다도 오히려 의무가 된다. 고등교육의 목적은 고도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범국민적 육성이 된다.

이상과 같은 트로의 고등교육 발전 단계설에 비추어 볼 때, 서구 제국이나 일본은 1950년대에 그리고 미국은 그에 훨씬 앞선 1920년대에 이미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이르렀고, '60년대 이후의 미국은 바야흐로 유니버설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버클리의 학생 운동은 그 전환기적 문제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학문 연구 본위의 근대 대학(university)의 모델이 베를린대학으로 상징되는 독일대학이라면, 현대의 다원적인 복합 대학(multiversity)의 모델은 미국 대학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대학은 二重의 의미에서 현대 대학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니, 즉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어느 나라의 대학보다도 앞서서 그리고 더욱 큰 규모로 실현하고 고도 산업 사회의 요구를 가장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960년대 있어 미국에는 2천 이상의 대학이 40만 이상의 교직원과 관리자 그리고 700만에 이르는 학생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대학이 미국 사회와 전적으로 共生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 수 700만이라는 수자는 동일한 청소년 연령층의 약 절반이 대학생임을 말해 준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60년대 이후 선진 산업 사회의 일반적 경향으로 西獨의 경우 '70년대초에 있어 13세의 생도 중 약 1/4이 대학 진학 과정인 人文中·高等學校(Gymnasium)에 진학하고 1972년에는 김나지움 졸업생의 거의 9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대학 진학율은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85년을 기점으로 과거 3년간 19세 인구의 대학 진학율은 40%에 이르며 '85년도 현재 대학생 수는 96만 9천을 헤아려 동일한 연령층의 36.4%에 달한다. 서구적 신분 사회의 특징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 그 대로 반영되었던 서구에 있어서도 대학 과정은 이제 엘리트 코스를 의미하지 않는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다. 서독의 사회학자 다렌도르프

(R. Dahrendorf)는 교육상의 시민적 권리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적인 것으로 강조하였거니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바로 대중민주주의 사회의 전제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당연히 대학의 민주화와 그 기능의 다원화에 연결되어 학생 수가 1만 명을 넘는 대학이 미국에는 317 개교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대학은 10만 명 이상의 학생을 거느리고 있어 동 대학의 총장이었던 커(C. Kerr)로 하여금 複合大學의 명칭을 만들어 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복합 대학 최대의 특징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방대한 수나 학교의 엄청난 규모가 아니라 현대 산업 사회에 적응하는 고도로 세분화된 교과과정의 다양성이라고 할 것이다. 코넬대학의 창건자인 코넬(E. Cornell)은 “어느 누구도 어떤 학문 분야의 교육이라도 찾을 수 있는 기관을 나는 창설할 것이다”라고 일찌기 선언한 바 있거니와 코넬대학의 ‘만능 교과과정의 이념(the idea of <all purpose> curriculum)’이 이제 미국 복합 대학에 널리 수용되어 오늘날 교과 과목 수는 그 명칭만도 2,599 종류에 이른다. 그 중에는 광고학·저어널리즘학·텔레비-라디오학, 埋葬學·교통학이 포함되며, 253종의 교과 과목을 지닌 工業學에는 드라이-크리닝공학, 그리고 218종이나 되는 교육학 중에는 자동차 운전, 안전 교육 등의 과목도 있다.

3. 버클리大學의 實態

1964년 이후 캘리포니아대학 분교인 버클리대학의 학생 과격파는 미국뿐만 아니라 1970년 전후 선진 고도 산업 사회의 여러 대학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학생 운동에 전위적 역할을 하여 전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버클리의 학생 운동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캘리포니아대학, 특히 버클리分校에 관해 살펴 보자.

캘리포니아대학은 대학교육에 관한 하나의 바람직한 미래 형태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왔다. 1868년 개교 당시 겨우 10명에 불과하였던 교수와 38명의 학생은 1962년에는 4만 명을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되고 1970

년대에 이르러서는 9개교의 독립된 캠퍼스에 10만 학생과 1만 교수 및 3만을 넘는 연구원과 직원을 거느린 미국 최대의 州立大學의 하나가 된다. 버클리분교는 그 중에서도 학부 학생 1만 8천 명, 대학원 학생 1만 명, 370만 권의 장서, 5개의 단과대학(college), 11개의 전문부(professional school)를 갖춘 종합대학으로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연구와 교육의 최첨단을 걷는 名門大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버클리의 학생 총수 2만 8천 명(1968년도) 중 약 1/4이 기혼자이며 외국 유학생도 2천 명을 헤아린다. 연간 5억 달러 이상이나 되는 예산의 약 50%는 州에 의지하고 약 30%는 연방 정부에 의해 충당되며, 州憲法의 규정에 의해 대학 이사회(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가 세속적·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대학을 관장한다. 理事 正원은 24명으로 그 중 16명은 州知事가 임명하며 나머지 8명은 주지사·대학 총장·주 의회 의장과 같은 직책상의 이사이다. 州立大學의 경계는 바로 주의 경계라는 말이 있듯이 주립 캘리포니아대학의 성격은 대학의 경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대학 이사회의 구성 멤버에 의해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총장은 그 밑에 부총장과 9개교 대학의 學長(chancellor)을 거느리고 있다. 미국 대학의 다원적 성격은 총장의 역할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그는 학내의 교육면만을 담당하는 유럽의 총장(rector)과는 전혀 다르다. 캘리포니아대학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클라크 커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대학 총장은 “학생에게는 벗이며, 교수에게는 동료요, 졸업생들에게는 ‘좋은 친구’로서, 이사들에게는 건전한 경영자이며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는 훌륭한 연설가이며 재단이나 정부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기민한 교섭자요, 주 의회에 대해서는 정치가가 되고 산업계·노동계·농촌의 이해자이며, 기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는 외교관이 되고,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어야 하고 직업 훈련(특히 법학과 의학)을 뒷받침하고, 신문 기자들에게는 스포크스맨(spokesman)이며,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는 훌륭한 학자이며, 州나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는 公僕이며, 오페라에도

축구 경기에도 동일하게 박수를 보내고 훌륭한 인격자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며 열성적인 교회 멤버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고매한 인격을 지닌 뛰어난 학식자이면 족했던 지난 날의 대학 總長像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다원적 자질이 요구되는 새로운 총장상인가? 그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은 바로 그대로 오늘날의 복합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인 것이다. 오늘날 범세계적 현상이 된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와 다양성은 대중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부응되고 기술·산업 사회의 요구에 호응한 역사적으로도 필연적인 결과이거나 미국의 경우 특히 강조되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사회 봉사(public service)’의 개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회 봉사에는 ① 외부 사회에서의 기술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학의 조언과 비판, ② 일반 공중에 대한 문화적·스포츠적 행사의 개최, ③ 일반 공중에 대한 공개 코urses의 제공, ④ 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시 등이 있다. 1862년의 모릴(morill)법을 통한 州立大學의 탄생은 바로 사회 봉사라는 미국 정신의 소산이요 그 결실로서 농학이나 공학 등의 전문 직업교육이 대학의 敎科로 받아 들여지고 대학은 점차 직업지향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州가 유지하는 대학은 농업의 개선, 보다 능률적인 공업, 보다 훌륭한 정부에 직접 공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념 위에 주립대학은 날로 사회화·대중화 그리고 맘모스화가 되었다. 만민을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이상이 실현된 시점에서 대학 제도를 뒤흔드는 학생 반란이 버클리에서 발생되었던 것이다.

4. 학생의 疎外感과 反體制 志向

학생 문제 전문가인 립셋(S.M. Lipset) 교수에 의하면, 학생 운동은 대체로 정치·사회 상황, 개인의 심리, 가정 환경 및 대학의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다고 한다.

버클리의 학생 반란은 애초에 6백 명 이상의 학생이 ‘인종평동회의’의 지도자가 감금되어 있는 경찰 차를 포위하였다가 체포된 7백 명의

학생에 의해 대학 사무국 건물이 점거되고 며칠 간 대학이 폐쇄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소동은 1964년에서 '65년에 걸친 ‘자유 언론 논쟁(free speech controversy)’에 의해 학교 당국을 경악케 하면서 점차 거대한 정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이 버클리 반란으로 크게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反戰 운동 및 공민권 운동과 함께 바로 複合大學의 해독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감에서였다.

이제 우리들은 버클리의 학생 운동을 추적함으로써 현대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과격한 학생 운동은 미국의 경우 대체로 대규모의 名門 州立大學(3만 명 가까운 학생을 지닌)에서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대학과 아나버의 미시건대학, 마디슨에 있는 위스콘신대학 등이다. 이 3개 대학에서의 긴장 관계는 우선 그 대학들이 州立이라는 체제에서 출발된다. 즉 주 정부 및 연방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의 보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결과로 연구 중목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대학의 자율화 내지 교권의 침해 등이 나타났으며 교육보다도 연구에 편중하는 현상 등이 일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州立大學은 私立大學에 비해 본질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약하다. 대학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에 의지함으로써 주립대학은 항시 외부의 압력과 맞서야 하며 교수나 학생들의 관심사는 市場과 관련을 지닌 급여·보수 구조나 장래의 進路 등이다. 주립대학의 긴장과 욕구 불만은 교수와 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데도 큰 원인이 있다. 그 결과 교수는 언제나 서로 경쟁적 인간 관계에 놓여 있다. 한편 학생으로 말하면 가장 명문의 주립대학에서조차 그 知的 수준이 잡다할 수밖에 없다. 버클리대학의 경우 입학생 중 1/4이 국무장관의 이름을 모르며, 신입생의 절반 가량이 즐겨 읽은 詩集이 한 권 없는 학생들이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의 사립대학의 경우 1학년 학생의 70~90%가 SAT(학문적 조사 태도)의 600점 이상인데 반해 버클리에서는 30%에 불과하고, 사립대학에서는 21%가 500점 이

하였던 데 반해 버클리에서는 1/3 이 500 점 이하였다. 그래도 버클리는 주립대학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학이다. 버클리를 비롯한 주립대학은 대체로 '생산성이 있는' 저명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버드 등 동부의 옛 사립대학이 지니고 있는 知的 분위기나 전통이 결여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교수들은 개인적 지위에 관해 불안정하다. 학생들의 불안도 이러한 교수간의 불안을 반영하여 졸업 뒤의 진로에 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쓴다. 특히 지적할 것은 교수와 학생의 人間的·知的 교류가 사립에 비해 훨씬 소원하다는 점이다. 맘모스대학의 대강의실에서는 처음부터 교수와 학생간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교류는 기대될 수 없다. 버클리의 조사에 의하면 교수들이 '학생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겨우 1/3 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같은 주립대학인 위스콘신대학에서는 대학이 '비인간화 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80%에 이른다. 59%의 학생이 '오늘날 대규모 대학의 학생은 더 이상 한 개인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학생들은 교육이라는 공장의 IBM 카드의 넘버와 바뀌어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버클리의 경우 1/3 이나 되는 학생이 '주위에 사람들이 때 지어 있기는 하나 캠퍼스를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는 때가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파리의 5월 학생 봉기 배경에도 학생들의 소외된 고독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데모 대열 속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연대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많은 학생들이 토로하였다. 소외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버클리로 부터의 退學을 결심시켰으며(버클리에서는 입학생의 50%가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둔다. 하버드의 경우는 5%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 反文化的 자아 의식이 고양되어 마침내 사회·정치적 과격 운동으로 그들을 몰고 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 학생은 자기 중심의 이른바 '私生活 中心' 主義者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체로 직업지향적이 된다.

1964년에 버클리 학생 운동에 참가한 학생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았는데, 학생 운동이 한창이었던 '65년 4월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90

%의 학생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 대학은 훌륭한 學習의 場이다'라고 대답하는 데 동의하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의 현상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개별적 설문문의 경우 80%에 가까운 학생이 대학이 공장과 같이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학생의 약 2/3가 대학을 '비인격적 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같은 제품이 대량 생산되고 노동자가 비인격적으로 취급되는 공장으로 비유되는 대학은 더이상 학생들에게 있어 자기들의 일체감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공동체적 일체감 상실의 배경에는 명문 사립대학의 학생들과는 판이한 그들 자신의 출신 계층과 지역, 그리고 재능과 학업 목적의 다양한 이질성도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다. '반체제적' 문화에 학생들이 기울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그들이 고향을 떠나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많은 학생이 자택으로부터 통학하거나 혹은 대학 기숙사에 있는 사립대학의 학생들이 대체로 대학의 어느 씨름에 속하고 있어 더욱 同儕의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립대학 학생의 대다수는 고향을 떠나 입학하게 되고 학급 위원 선출을 위한 학생 선거에도 그들은 보통 유권자의 1/10 정도밖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1/10은 대체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 그밖의 절대 다수 학생들에게 있어 버클리는 단지 미래를 위한 학습의 장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옥스포드나 하버드의 전체 학생들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독자적인 共有 體驗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간의 소외감 이상으로 그 거리가 먼 것은 학생과 교수간의 인간 관계이다. 많은 학생들이 지난 3학기간의 지도 교수의 이름을 상기하지 못한다. '그 강의가 끝나면 다시는 그 교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생들의 불만 토로이다.

소외된 학생들은 대학의 벽속의 이상주의는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 들어 오기 전에 이미 기성 세대에 대해 환멸을 느낀 학생들은 처음에는 '예언자'나 '현자'를 찾아 교수에게 기

대한다. 교수가 있는 대학에 학생이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가 참가할 수 있는 공동 사회에 대한 갈망이요, 成人과의 만족할 만한 交分를 발견하는 일이다. 또 사회악을 배제하는 그들의 싸움에서 교수들의 지지를 얻는 일이었다. 그러한 고도의 기대를 품는 학생들은 비교적 뛰어난 의식층으로서 그들은 결국 대학에서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학이 기성 체제에 동조하여 창조적인 인간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비관적인 학생들은 교수들의 연구를 진리의 탐구로 보기보다도 오히려 교수들 자신의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교수들은 예인자도 현자도 아니고 한 분야의 전문가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는 편견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간주한다. 학생들은 결국 대학을 조직화된 체제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대학을 거부함은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은 사회·정치적 행동에 몰두하게 되고 자율적인 이념의 세계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순수한 지식의 탐구라는 대학 본래의 목적을 긍정하지 않고 엄정 중립은 사회과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수들의 中立을 오히려 도덕적 무책임으로 비판한다.

5. 버클리叛亂이 의미하는 것

1965년의 버클리 학원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학생이 학내에서 자유로이 정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 논쟁 속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버클리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적절할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시점에서 많은 관측자들은 학원 분쟁을 종래의 교육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폭 넓은 불만의 표출로 인식하였다.

학생 운동이 고등교육과의 관련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생 운동가들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5월 학생 반란의 경우와는 달리 학생과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교육상의 문제에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버클리의 경우에도 소수의 학생들만이 대학 개혁에 대한 각종 제안에 관심을 표시하였다. 리

스만(D. Riesman) 교수는 학생들이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표했다라면 그들은 대학의 정책형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회와 학교 당국은 교육 개혁에 학생을 참여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정치지향적인 학생 운동가들은 교육의 '기존 체제'와의 협력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학생 운동은 공민권 투쟁과 더불어 버클리의 사건을 통해 고등교육의 문제에 큰 관심을 몰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물론 많은 유형의 학생이 존재한다. 대체로 미국 사회를 그대로 긍정하는 학생, 학생 회관이나 기숙사의 문화를 즐기는 학생, 특히 직업 준비 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대학에 만족하며, 적어도 자기의 불만을 대학에 대한 투쟁에 의해 표명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배우는 학생을 위시하여 개인주의로 인해 고독한 생활을 애호하는 자, 정신이 불안정한 자, 콤플렉스-퍼스널리티를 농후하게 지닌 자 및 미국 사회의 중요한 국면을 거부하는 자는 퇴학하거나 대학에 항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갖가지로 혼합되어 '反文化的'인 반항을 낳기도 하고 혹은 집단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대학에 대한 그들의 반항은 그들이 받는 교육에 대한 불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떠한 대학 개혁도 그들의 불만을 충분히 해소할 수는 없다.

버클리는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학생의 정치 활동에 있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즉 1930년대에는 人民戰線 지지를 위해, '50년대 초기에는 忠誠宣誓 논쟁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1950~'60년에는 下院 非美活動委員會에 반대하여 데모를 하고 '63~'64년에는 公民權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일종의 삶에 대한 보람을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의해 찾고자 하는 학생들을 버클리에 끌어들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버클리에서 연대 의식이나 공동체 문화를 차지 못한 학생들은 자유 언론 운동에 촉발되어 하루아침에 공동체 정신을 발견하는 듯하였다. 학생들은 대학 관리 당국에

대한 반항을 통해 삶의 보람과 도덕적 충동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소외감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우리들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항 학생의 사고 방식의 특징은 그들이 현대 미국의 많은 측면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飢餓되어야 할 일들이 미국에 너무나 많은 반면 바람직한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 사회는 공공의 복지를 사리사욕으로 인해 포기하고 소수 특권층이 기술 장치에 의지하여 일반 대중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항 학생들에 의하면 지배 집단은 자유·애국심·종교·도덕심의 옹호자로 자인하면서 사실은 슬럼街나 인종 격리, 허위 광고나 경제적 제국주의, 폭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위에 公的 생활은 물론 私的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不正과 부도덕이 존재함을 학생들은 비판한다. 학생들은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속이고 組織人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발언하기보다도 기대되고 있는 대로 발언하는 등 他人志向의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을 공포 속에 몰아 넣는 것은 개인의 책임감의 결여가 테크놀러지와 사이버네틱스와 결합하여 관료화되고 기계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확신이다. '30세 이상은 누구도 신용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年長者들이 체제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을 만큼 부패되고 있다는 기성 세대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말해 준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구제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출세한 자기들의 父親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 양친이 종교적 행사에 충실할 경우 그만큼 그들은 반종교적이 된다.

학생들은 자본주의 사회는 퇴폐하고 지배 집단은 知的으로 황폐하다고 본다. 그들은 미국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민요 歌手나 흑인 음악가 및 방랑 예술가나 作家라고 확신한다.

학생들의 반역은 구세대가 찬미하는 미국의 전통적 理想, 즉 청교도적 윤리나 개인주의 및 애국심에 향해 있다. 청교도 윤리에 반대하여 학생들은 性과 감정의 자유를 구가한다. 그들은

私有財産의 형태를 취하는 개인주의가 巨富나 부당한 상품을 정당화할 때 그것을 惡으로 간주한다. 그들에게 있어 미국의 역사는 국내에서는 非앵글로-색슨 민족과 그 문화의 착취, 국외에서는 죄 없는 제국의 착취에 관한 탐욕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더 비판적으로 보면 미국, 아니 全西洋은 더 이상 세계에 대한 사명을 상실한 듯이 생각된다. 인류에 대해 그리스도교보다도 더 큰 희망을 제공하는 것은 禪이다.

이상과 같은 비판 의식을 지닌 소수 학생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정치의 계절이 지나자 사회로부터의 도피라는 형태를 취해 비트族이 되거나 이질적 생활 양식이나 복장 등을 통해 체제에의 거부를 나타냈다. 그 뒤 이러한 형태의 반대 시위는 더욱 확산되어 장발, 맨발은 과잉 사회의 顯示의 소비와 획일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과시되었다. 학생들은 기성 세대가 마시는 위스키 대신에 마약을 사용한다. 마약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를 이성이나 논리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창조적이 되고자 의도한다. 이렇듯 반역은 국외자에게는 자기 파괴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나태나 무책임은 근면이라는 청교도적 윤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학생 활동가들은 원폭 실험, 인종 차별, 베트남 개입을 惡으로 공격하였다. 그들은 집단을 구성하여 청원·행진·기도 및 연좌 시위 등의 항의 운동이나 시민적 불복종 속에서 새로운 '산 공동체'를 추구한다.

公私의 惡에 대해 구제 수단을 찾는 경우 그들은 극히 성급하며 자기들의 世界像만이 정당한 것으로 맹신한다.

미국의 학생들은 1964년 이전에 있어서는 대체로 정치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리고 버클리의 소요 이후에 있어서는 전체 학생 중 소수만이 각종의 '新左派' 조직의 멤버 내지 그 동조자로서 간주되며 그 수는 미국 전역에 걸쳐 약 1만 2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랜 시일에 걸쳐 벌어진 공민권을 둘러싼 데모 대열에 참가한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18%에 달하였다. 그리고 버클리의 경우에도 전체 학생의 4% 정도가 대학 문제 내지 정치 문제에 관련하여 행동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은

교육 개혁에 큰 압력이 되었으며 베트남 전쟁 정책을 변경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미국 사회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공민권 운동의 확산도 학생 운동에 분명히 뿌리를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운동권 학생 그들은 어떠한 학생들이가? 과격한 소수와 학생들은 대체로 중산 계급 출신으로 양친이 대학교육을 받은 知的 가정의 출신으로서 그들 자신은 전문적 혹은 직업적 지향형이라기보다도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에 보다 관심이 있고, 知的 지향성이 높다. 그리고 그들은 일반 학생들보다도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정의롭고 이상주의적인 학생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과격과 학생 활동가들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말하자면 학생 운동가들은 원래 엘리트 코스가 약속된 뛰어난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날의 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나 개혁이 정부의 차원에서나 학교 당국 자체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도 일련의 학생 운동이 계기가 된 결과였음을 알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학 제도의 위기'가 거론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대학 개혁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1965년 5월의 학생 운동이었으며 미국에서의 대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버클리의 학생 운동이 시발점이 되었다. 대학 개혁 논의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 학생 사건 뒤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分校 評議會가 제출한 「버클리의 교육—특별위원회 보고서」(1966)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현대 대학이 맞서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고도 산업 사회의 상황 속에서 지식과 연구를 얼마만큼 인간적인 교육과 슬기롭게 점목시키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자.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농업 사회로부터 산업 사회로 옮겨지면서 계층간·세대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세대간의 갈등은 '70년대 후

반 이후 고도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두드러진 가족의 붕괴와 父權의 상실, 가부장적 윤리의 퇴색, 청년·학생 세대 인구의 급격한 증대 및 계층간의 분열이라는 일반적 요인 이외에도 국토의 분단 상황, 장기간에 걸친 비민주적 정치 체제라는 한국적 특수 상황은 세대간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체제나 기성 세대에 대해 불신감을 지닌 청년 세대를 낳았다. 청년 세대 중에서도 학생 세대는 그들의 강한 비판 의식으로 인하여 기성 세대에 대해 대립적인 관계를 지니게까지 되었다.

4·19 학생 봉기 이래 우리 학생들은 국민의 정치 여론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반체제적 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생 세대는 앞에서 말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4·19 세대와는 그 성격을 지극히 달리 하고 있다. 4·19 학생 봉기는 집권당이 범한 부정 선거라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상주의적 학생 세대의 '양심'의 항거였다. 그 심정적 윤리로 하여 그들은 이승만 정권의 퇴진만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생 세대는 그들과는 이질적이다. 오늘날 학생들은 마치 프랑스 5월 봉기의 학생들이나 버클리의 학생들과도 같이 개개의 특수한 사건들을 체제의 구조와 관련시키고 특수한 문제들 속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 오늘날 이 땅의 학생 운동을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적인 인쇄물이나 운동의 실행 과정에서도 노출된 전술만으로 그들을 '좌경'이니 혹은 '용공'이니 하여 낙인을 찍음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일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간의 비민주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학과 대학인이었다. 총·학장을 교수회에서 선출하였던 대학의 자율성이 5·16 쿠데타에 의해 박탈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교수회의 권한은 점차로 유명무실화 되고 문교부가 지시하는 이른바 '학생 지도'의 지침이 교수회의 주된 의제가 되었다. 정보 정치의 대학 침투는 '기관원'을 캠퍼스에 출입시키고 교과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국적 있는 교육'이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제창과 때를 같이 하여 강조되고 '국민

윤리'라는 에메모호한 과목이 생겨나고 철학 및 세계문화사가 선택 과목으로 격하되고 정치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등의 신설이 역제되었다. 사회과학적 의식을 지닌 '문제 학생'의 대두를 예방한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필자는 12년간의 나치스 지배가 독일의 학문에 미친 해독에 관해 힘을 주어 말한 한 서독 학생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5·16 이후 우리 대학의 암흑의 오랜 세월을 생각할 때마다 비통한 감회를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지성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상 가장 깊은 역사 의식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프롬과 함께 마르쿠제를 읽고 프랑크푸르트학과나 제 3 세계와 더불어 우리의 현대사에 큰 관심을 지녔다.

현대사의 주요한 특징이 전통적 모랄이 쌓아 올린 우상과 금기의 파괴와 모든 권위의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심의 타파에 있다고 할 때, 이들 학생들이야말로 한국에서의 20세기 후반기를 사는 유일한 동시대인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모랄과 강령, 그리고 새로운 사회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知的 언급장은 '70년대 후반에 새로이 등장한 출판 문화였다. 대학의 무력은 여기에서도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수십 명의 교수들이 대학으로부터 추방되고 1천 3백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되고 1천 4백여 명의 학생들이 또한 학적을 박탈 당하였으나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반체제를 지향하는 대학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이른바 6·29 선언은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의 소산이었거니와 이 국민적 저항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었던가!

오늘의 학생 운동은 물론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운동권 학생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1968년 5월 혁명의 프랑스 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 출신이며,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사회관 혹은 인생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대다수가 버클리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기성 체제 속에서 엘리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질과 배경을 갖추었으면서도 조국 민주화애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가시받길 선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서울대 복학생협의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되어 2심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85년 10월에 출옥한 柳時敏군이 '항소 이유서'(1985. 5. 27)에서 언급한 그의 자화상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그간에 회생된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의 도래를 염원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 이유서의 맺음말에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뻔한 물이 들어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 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즉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6. 맺는 말

오늘날 이 땅의 학생 세대는 대학 캠퍼스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의 강력한 집단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학생 세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인식하는 대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인식이나 이해에 앞서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大學文化의 창출이라고 할 것이니, 새로이 형성되어야 할 대학 문화는 대학 밖의 세계로부터 전수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의 자유로운 知的 공동 작업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부인하거나와
우리들의 여러 문제는 학생 세대의 관점 속에 반
영되고 있다. *

<參 考 文 獻>

「大學의 社會史」 5 회에 걸쳐 참고한 문헌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中世 大學 성립과 새로운 知的 狀況>에 관해
서는
C.H. Haskins, *The Rise of Universities*, origi-
nally given as the Colver Lectures in 1923
in Brown University, New York, 1957.
H. Denifle, *Die Entstehung der Universitäten des
Mittelalters bis 1400*, Berlin, 1954.
H. Rashdall, *The Universities of Europe in the
Middle Ages*, Oxford, 1936, Bd.1, Bd.2.
L. Thorndike, *University Records and Life in
the Middle Ages*, New York, 1975.
H. Grundmann, *vom Ursprung der Universität
im Mittelalter*, Darmstadt, 1964.
李光周譯, 「中世大學의 成立」, 探究新書.
J. Le Goff, *Les intellectuels au moyen âge*, Paris,
1959. 日譯, 「中世의 知識人」, 岩波新書, 1977.
L. Febure et H.-J. Martin, *L'apparition du livre*,
1971. 日譯, 「書物의 出現」(上·下), 1985.
金成植, 「大學史」, 1949.
吳主煥, 「Oxford-Cambridge의 知的 傳統」 I·II,
慶北史學, 제 2 집(1980), 제 3 집(1981).
2. <近世 大學의 형성과 그 沈滯>에 관해서는
B. Michael, H.-H. Schepp(Hrsg), *politik und
Schule von der Fränzösische Revolution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m., 1973.
Fr. Paulsen, *Geschichte des gelehrten Unterrichts
auf den deutschen Schulen und Universitäten*,
Bd.1, Berlin, 1965.
M. Kraul, *Das Deutsche Gymnasium*, a/m. Frank-
furt, 1984.
M. von Boehn, *Deutschland im 18. Jahrhundert
Die Aufklärung*, Berlin, 1922.
Rashdall, 앞의 책.
3. <베를린大學과 '學問의 自由'의 문제>는
F. Schleiermacher, *Gelegentliche Gedanken über*

Universitäten im deutschen Sinn, 1826.

- F.W. J. Schelling, *Vorlesungen über die methode
des akademischen Studiums*, 1802.
J.G. Fichte, *Deduzierter plan einer in Berlin zu
errichtenden höheren Lehranstalt*, 1808.
W. von Humboldt, *Über die innere und äussere
Organis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Anstalten in Berlin*, 1810.
이상 4 편의 논문은 다음의 서적에 모두 수록
되어 있다.
A.L. Rowse, *Oxford in the history of the nation*,
London, 1975.
C.E. McClelland, *State, Society, and Universit^y
in Germany, 1700~1914*, London, 1980.
E. Anrich(Hrsg), *Die Idee der Deutschen Univer-
sität*, Darmstadt, 1964.
A. Schelsky, *Einsamkeit und Freiheit Idee und
Gestalt der deutschen Universität und ihrer
Reformen*, 1963.
I. Kant, *Der Streit der Fakultäten*, 1798 in: I.
Kant's sämtliche werke, Leipzig, 1905.
J.H.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Camb-
ridge Univ. Press, 1955.
L. Bernhardt, *Akademische Selbstwaltung in
Frankreich und Deutschland*, Berlin, 1930.
Paulsen, 앞의 책, Bd.2.
F. Gause, *Kant und Königsherg*, 1974.
日譯, 「칸트와 케어니히스벨크」, 1984.
H.P. Bleuel, *Deutschlands Bekenner*, Bern, 1968.
李光周譯, 「知性的 沒落」, 한길사.
H. von Helmholtz, *Über die Freiheit der wissen-
schaften in den deutschen Universitäten*,
1877, 劉俊燮譯, 「독일 대학의 학문적 자유」,
1985.
高柳信一, 「學問의 自由」, 岩波書店, 1983.
金成植, 「獨逸學生運動史」.
4. <技術·産業社會에서의 大學 狀況> 및 5. <現代
에서의 大學의 變革과 그 問題性>에 관해서는
D. Riesman, C. Jencks, *The Academic Revolution*,
Doubleday, 1968.
E. Ashby, *Technology and the Academics—
An Essay on Universiti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Cambridge, 1963.
*Education at Berkeley: Report of the Select Co-
mmittee on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

nia press, 1968.
 L.A. Coser, *Men of Ideas—A Sociologist's view*,
 New york, 1970.
 S.M. Lipset, ed., *Student politics*, New york,
 1967.
 J. Sauvageot, A. Gaismar, D. Cohn-Bendit, *La
 Révolte Étudiante*, 1968.

日譯, 「學生革命」, 1968.
 李光周, 〈1968년 5월 學生革命〉: 「大學教育」(1985).
 李光周, 〈大學의 自由와 현실〉: 「月刊朝鮮」(1983).
 李光周, 〈技術 産業社會와 大學〉: 「大學教育」(1986).
 李光周, 〈1968年 西獨學生運動〉, 「歷史속에 선 人
 間」, 1979.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과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
 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資料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 대학의 現職教
 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협의회 의 소정 양식 '教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83-3065, 3067, 3068, 3891)